



광주교통공사 ‘재난대응 안전한국’ 합동훈련

광주교통공사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역에서 광산구 등 12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훈련에는 광산소방, 보건소, 광산경찰, 광주시 드론운영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유기적으로 참여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전동차 탈선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공사의 위기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구성된 총 5명의 시민 체험단이 직접 참여, 훈련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참관하며 시민 눈높이에서의 평가 의견과 개선 사항 등을 제시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관련 대형 사고를 가정해 진행한 이번 훈련을 통해 발빠른 위기대응 기구 운영을 통한 초동 조치, 기관별 임무 분담·사고 상황 통제, 화재 진압·피해 복구 등 전반적인 재난 상황 대처 능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교육청 스마트공장 인재 양성 앞장

동일미래학교고등학교와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 지난 16일 동일미래학교 산학협력위원회실에서 ‘스마트공장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및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특화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 주력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스마트공장 관련 학생 대상 교육 및 현장 견학 △교직원 대상 전문 연수 △취업맞춤반 학생 대상 스마트공장 연계 교육과정 개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회원사와의 취업 연계 등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대 외국인 유학생 한국전통문화 체험

광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최근 호심기념도서관에서 ‘Beauty & Photo in the Library’ 문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8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37명이 참여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도서관 내 주요시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헤어 및 메이크업 지원, 캘리그라피 및 디퓨저 만들기를 체험했다.

학교법인 호심학원 송숙남 이사장은 사비로 한복을 마련해 유학생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지원했으며, 국제협력처는 유학생 모집 및 행사 운영을 총괄했다. 또한 뷰티미용학과 교수·강사진과 재학생들은 메이크업과 헤어 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유학생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끌어냈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준비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권역별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사진)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회에 걸쳐 이뤄지는 권역별 연수는 16~17일 국립목포대학교(서부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중부권), 이어 23~2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동부권)에서 각각 진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연수는 2026년 모든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장, 과장, 학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병하 기자



을로운수 최창구 대표, 전남대병원에 후원

광주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 을로운수 박창구 대표가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후원금 1억원을 약정, 기탁했다.(사진)

1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신 전남대병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정숙인 교육수련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김갑성 새병원추진본부 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보직자와 박 대표 등을 을로운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박 대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대병원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전남대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의료선도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소방, 외국어 통역도우미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어 3자 통역도우미 간담회·소양교육’을 열고 외국인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의 119신고 때 의사소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통역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외국어 3자 통역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3개 언어권에서 50명의 통역도우미가 활동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위급 상황 통역요령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비 당부사항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 대처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성아 기자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나눔히어로’ 캠페인 동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6일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임원사 19개사 및 24개 기업이 ‘나눔기업’에 단체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이번 나눔기업 가입식은 박흥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 및 임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동네 나눔 히어로’ 캠페인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인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나눔기업은 △㈜넥스오토·㈜현대하이텍 (김용구) △㈜그린ENS (이숙희) △㈜금성필름 (김용동) △뉴바이오주 (김숙희) △㈜녹색기술연구소 (양현) △㈜뉴그린코리아 (배문자) △㈜디지탈테크 (박운

욱) △㈜랩코 (류준호) △㈜비온사이 노베이터 (김용수) △㈜삼성철광 (양인욱)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신소재산업㈜ (장춘식) △신진정밀㈜ (최진숙) △㈜에니셀 (임영우) △㈜에쓰바이오 (이성범) △㈜윙토닉스 (이영우) △㈜프로텍 (이용범) △㈜하이텍산업개발 (이석준) △㈜위더·㈜케이넷 (이천호) △㈜윙원엔지니어링 (문창식) △㈜장덕금속 (고영화) △㈜한국투엠 (이갑조) 총 24개 기업이다.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회원사들이 함께한 이번 나눔 참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환경공단, ‘하수 배출 요령·지역 소멸 위기 대응’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과 ‘저출생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하수 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저출생 문제로 인한 광주 지역의 인구 감소·지역 소멸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피켓 등을 활용한 대면 활동을 통해 생활하수 처리 방법과 인

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직접 안내했으며, 환경 실천과 인구 위기 대응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병수 이사장은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호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어도어 “뉴진스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로 돌아와 활동하는 게기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



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